

사랑의 길

The Way of Love

사도행전 11:27-30; 고린도전서 12:31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2년 7월 15일 설교

²⁷그 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²⁸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²⁹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³⁰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³¹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과 기도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 자세하게 가르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고린도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은사가 없어서 가르친 게 아니라 은사가 많아서, 그것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은사가 너무 풍성해서 은사에 대해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교회에 풍성했던 은사 가운데 첫째가 뭐겠습니까? 말씀이지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 이런 게 다 말씀의 은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했는데 구변의 원문은 그냥 말씀입니다 (고전 1:5). 말씀과 지식이 넘쳤다는 거지요. 비결이 뭐였을까요? 좋은 선생이 많아 그랬습니다. 첫째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개척한 사람인데 간단히 말해 당대 최고 학문을 섭렵한 사람이면서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많이 받은, 정말 세상 학문도 하나님 말씀도 부족한 것 하나 없이 다 갖춘 사람입니다.

둘째는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누구니까? 두 주 전에 설명 드렸지요? 성경 박사였습니다. 바울이 철학박사라면 아볼로는 신학박사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미 오신 줄 모르고 있다가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 그걸 배운 다음 그 해박한 성경 지식을 바탕으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전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그렇게 전파하고 가르친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행 18:24-19:1). 바울에게 배운 교인들이 아볼로한테 또 배웠으니 이보다 더 좋은 교육이 어디 있었습니까?

말씀의 은사에 더하여 고린도교회는 기도의 은사도 넘쳤습니다. 기도가 은사는 아니겠지요. 기도를 많이 했다는 말인데 기도 많이 한 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다 방언을 하는 건 아니지만 방언의 은사는 대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그러니 고린도교회는 누가 보아도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은사와 교회

은사가 뭐라 했습니까? 말씀을 전하든, 아픈 사람을 낫게 하든, 아픈 사람을 들쳐 업고 병원으로 뛰든, 아니면 쓰레기를 치우든,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 하나님이 뜻을 갖고,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주시는 거라 했습니다. 그 목적이 뭐지요? 예,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각양각색의 사람이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그 모든 조각이 서로 다른 몸 아닌 한 몸, 곧 교회를 이루도록 한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신 그대로 교회를 잘 세워 가도록 그 은사를 활용해야 됩니다.

고린도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풍성했습니다. 자, 말씀과 기도, 이거 잘 하면 수석도 한다 그랬지요? 교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건물 자랑하는 교회도 많고 프로그램 자랑하는 교회도 많은데 고린도교회는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아니지요.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교회 사람들에게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다시 말해 “은사 가운데 빠지는 게 없다” 했으니 그런 은사도 고린도교회에 있었을 가능성이 큼니다.

그래서 고린도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의 모범이 될 만한 멋진 교회가 되었습니까? 고린도전후서를 읽어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고린도교회에 음란의 죄가 있었는데 보통 음행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죄, 바울의 말 그대

로 이방인도 안 짓는 끔찍한 죄를 고린도교인이 지었습니다. 교회에서 돈 거래를 하다가 잘못되었는지 교인들끼리 소송도 벌였습니다. 집사님하고 장로님이 소송을 벌인다, 이거 상상이나 되십니까?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우상제물 문제로 갈등이 생겼는데 당시 고린도는 대도시인 데다가 우상숭배가 성행한 곳이어서 시장에 나오는 음식물 가운데 우상에게 바쳤던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상 제물을 먹었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는 게 많다 보니 교만해진 거지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죄도 지었습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면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모멸감을 안겨주는 그런 죄도 지었습니다.

갈라진 몸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분열이었습니다. 기가 차지요. 한 몸을 세우라고 주신 게 은사인데 그 은사가 차고 넘친 결과 갈라졌습니다. 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인데, 교회를 하나로 세우라고 주신 은사인데, 그걸 잔뜩 가졌던 고린도교회가 둘로, 넷으로 갈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바울파와 아볼로파, 이렇게 둘로 갈라졌습니다 (고전 3:4-7). 처음 바울이 가르치고 이어 아볼로가 가르쳤는데 어느 선생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 하는 걸로 갈라진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도 아볼로도 아니고 베드로를 따르는 게 옳다 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베드로는 고린도까지 와서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수제자로 전체 교회를 책임지는 대표자입니다. 그러니 바울파, 아볼로파로 갈라지지 말고 예수님의 수제자, 범통 베드로 아래 합치자 한 건데 합쳐지기는커녕 베드로를 따르겠다는 사람끼리 또 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셋이지요?

그리스도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리스도는 한 몸이니 그렇게 갈라져 싸우면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베드로파가 생길 때와 마찬가지로 결국 그리스도를 따르자 한 사람끼리 또 한 그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개로 나누어져 싸우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가요? 말씀이 풍성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던 고린도교회가 그랬습니다.

이천년 전 일입니다. 지금은 다릅니까? 비슷하지요? 비슷한 게 아니라 아예 똑같습니다. 한국교회에 교파가 지금 수십, 수백인데 교파 이름에 주로 들어있는 낱말이 뭐니까? 통합, 합동, 총합, 연합, 등입니다. 네 낱말 모두 “합쳤다” “다 합쳤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통합도 한 파, 합동도 한 파, 총합도 연합도 다 파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연합이라는 말이 들어 있는 기관마다 가 보세요. 합쳐서 연합이 아니고 갈라졌기 때문에 연합이라는 말을 씁니다. 통합, 합동 말고 정통, 범통 이런 말도 쓰는데 고린도교회에 있던 베드로파의 연속인 셈이지요. 파를 초월하자 해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내세운 사람들도 지금은 그냥 한 교파입니다.

미국은 그럼 나으냐? 아니지요. 장로교회만 봐도 이름은 피 시 유에스에이 (PCUSA), 피 시 에이 (PCA) 해서 둘 다 미국장로교입니다. 그런데 보면 미국 장로교가 거기 다 든 게 아니고 일부만 있습니다. 말은 다 모였다 하는데 가 보면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가운데 정통 장로교회도 있습니다. 베드로 반열이지요?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것도 있지요. 영어로 WCC인데 이것도 세계 일부 교회 협의회입니다.

사랑의 길

주신 은사를 열심히 활용하여 다 같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도대체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교회를 둘로 넷으로 찢어놓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사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가 뭔지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은사는 오직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은사가 큰 은사요 좋은 은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몸이라 했습니다. 몸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체가 많이 있습니다. 팔, 다리, 머리, 눈, 코, 귀 등 많습니다. 이 많은 지체가 다 서로 부딪치지도 않고 서로 다투지도 않고 서로 도와가며 한 몸으로 잘 움직입니다. 손뼉을 칠 때나 손을 맞잡을 때 오른손 왼손이 잘 어울리지요? 팔짱을 낄 때는 팔 두 개가 서로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나를 이루는 걸 유익이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사를 갖고 싶다면 큰 은사, 곧 하나 되는 데 이바지하는 그런 은사를 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은사는 큰 은사고, 하나 되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은사는 작은 은사입니다. 그런데 하나 되게 하는 이 원리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좋은 길”이라 부릅니다. 원문은 “보다 뛰어난 길”입니다. 뛰어난 건 이미 말했습니다. 큰 은사, 하나 되게 하는 은사가 뛰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게 있습니다. 왜 “더” 뛰어난니까? 큰 그걸 크게 만드는 거니까,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작은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니까, 더 뛰어난 겁니다. 더 뛰어난 길은 그럼 어떤 길입니까?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입니다. 곧 이어 나오는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랑 장입니다.

그게 바로 보다 뛰어난 길입니다. 사랑의 길입니다. 서로 다른 여러 가지를 하나로 엮어주는 원리, 원동력, 그걸 사랑이라 부릅니다.

안디옥 교회

사랑이 무엇인지 살피기 전에 보기를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안디옥교회입니다. 안디옥교회는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인데 이 교회도 고린도교회하고 비슷하게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던 교회였습니다. 말씀은 먼저 바나바에게서 많이 배웠고 바나바가 바울을 발탁해 동역하게 되면서 바울에게도 또 많이 배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말고도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등 셋이 더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른 교회에서 사람을 초청해 말씀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교회와 달랐습니다. 바나바파, 바울파로 갈라지지 않았습니니다. 고린도교회와 마찬가지로 말씀이 풍성했지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 등 모든 말씀을 나를 자랑하는 일에 쓰지 않고, 편 가르기 하는 데도 쓰지 않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썼습니다. 그 보기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했습니다. 온 세상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 했습니다. 성령으로 예언했으니 예언의 은사, 말씀의 은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앞일을 미리 알게 해 주셨는데 안디옥 교인들은 말씀을 받자마자 가장 좋은 길을 골랐습니다. 사랑의 길입니다. 이제 곧 흉년이 들 거다, 이거 엄청난 정보입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우리 식구 흉년에 먹을 것 정도는 미리 준비할 겁니다. 재리에 밝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물투자를 해야지요. 큼직한 창고를 준비해 놓고 사재기를 해야겠지요? 때돈을 벌 겁니다.

그런데 나를 챙기는 것도 때돈을 노리는 것도 사랑의 길은 아닙니다. 안디옥교회 교인들은 사랑의 길을 골랐습니다. 흉년이 들면 많은 사람이 고생을 할 겁니다. 흉년이 들 줄 모르니까 준비도 못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정보를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소문을 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예언인 줄 안 믿으니 소용이 없습니다. 믿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준비를 했습니다. 있을 때 아껴서 어려울 때를 대비했습니다. 나도 물론 먹어야겠지만 사랑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나보다 이웃을 더 생각했습니다.

아가보가 예언한 흉년이 드디어 닥쳤습니다. 갑자기 닥치니 사람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특히 어려운 게 가난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때쯤 예루살렘교회가 극도의 가난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 다 팔아 교회에 바친 뒤로 경제생활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안디옥에 있는 나도 어렵지만 예루살렘 소식을 들으니 더 딱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힘을 모아 양식을 거두어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습니다. 너도 나도 다 어려운 흉년이지만 이들은 준비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은사는 곧 책임입니다. 맡았으면 충성해야 된다는 말씀처럼 (고전 4:2) 은사를 받았으면 활용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받았더라면 잘 활용해 교회에 크게 이바지했을 은사를 땅에 묻어두어야 되겠습니까? 안디옥 교인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파견 나온 선지자지만 그 사람이 가진 예언의 은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책임도 우리가 졌습니다. 사랑은 책임입니다. 말씀이 풍성하기는 고린도교회와 마찬가지로 사랑의 길을 선택하니 은사를 이렇게 멋지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뜨거운 기도

안디옥교회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교회를 시끄럽게 만든 방언의 문제가 안디옥교회에는 없었습니다. 대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안디옥교회는 유대인들이 지키던 금식 규례를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가 아니라 내가 적게 먹고 그걸 가난한 이웃과 나누겠다는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함께 교회에 모여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식 기간 중에 성령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보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명령을 어떤 방식으로 들었는지 그건 모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사람 마음속에 명령을 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하던 사람 모두에게 그런 마음을 함께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온 교회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뜻을 알려주신 것만은 분명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 하셨습니다. 두 사람을 이름까지 들어 명령하셨는데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교회의 담임목사와 수석부목사입니다. 안디옥교회는 적어도 수백 명이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바나바가 지금까지 맡아 왔고 바울이 가세한 뒤로 두 사람이 함께 말씀을 가르쳐 왔습니다. 교사가 셋 더 있지만 이 둘을 보내라는 건 교회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기둥 두 개를 뽑아 주라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구제할 양식을 멀리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금식하고 있었으니 구제

할 준비를 한 거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음식만 나누지 말고 말씀도 나누라 명령하신 겁니다. 몸도 배가 고프면 안 되지만 영혼의 배고픔을 풀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성령께서 시키신 그대로 두 사람을 뽑아 함께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한 다음 최초의 해외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고린도교회가 기도했더니 은사 때문에 싸움이 났는데 안디옥교회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최초의 해외선교를 시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디옥교회는 사랑의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은사와 교회

똑같이 말씀의 은사를 풍성하게 받고 똑같이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한 교회는 은사의 본디 목적과 반대로 가 서로 싸우고 갈라진 반면 다른 교회는 은사의 참 뜻을 알고 은사를 바로 활용하여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갈 뿐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고 복음을 먼 곳까지 전하는 참 뜻 깊은 일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복음을 멀리 전하는 이 두 가지 일은 온 세계 사람을 다 모아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우는, 가장 교회다운, 은사를 써도 가장 멋지게 쓰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몸의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은사를 제대로 활용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문제는 다르게 보면 머리의 지시를 제대로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눈만 해도 눈동자가 있고 눈꺼풀이 있고 눈 주변의 근육이 있습니다. 뭘 보려면 이것들이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모두가 다 한 머리의 지시를 받으니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이지 않습니까? 머리이신 주 예수께 붙어있어 지시를 받기만 하면 제대로 됩니다. 고린도교회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긴 했는데 주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쓰지 않고 제 마음대로 썼습니다. 안디옥교회는 말씀을 받자마자 순종해 이웃을 구제했고 기도할 때도 명령을 받자마자 즉각 순종했습니다.

주님 지시만 따르면 됩니다. 순종이지요? 다른 말로 사랑입니다. 아이는 사랑을 모릅니다. 그래서 몸도 잘 못 씁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목도 못 가누지요. 그러다가 목을 세우고 몸을 뒤집고 나중에는 일어섭니다. 걸다가 뛰고 나중에는 자전거도 탑니다. 처음에는 손으로 잡는 것도 안 되고 먹을 때도 흘렸는데 훈련을 거듭하더니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그러면 다 자란 겁니다. 몸이 어른이 된 거지요. 손발이 머리의 지시를 받아 척척 잘 맞아 들어가는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교회는 어린아이였지만 안디옥교회는 어른이었습니다. 교회도 자라야 됩니다.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엡 4:15-16).

왜 머리만 따르면 조화가 잘 됩니까? 간단하지요.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 영생으로 인도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랑입니다. 백 퍼센트 완벽한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흉내를 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우리 사랑의 순도도 높아집니다. 처음에는 삐걱거려던 게 이제는 매끄럽게 조화를 이룹니다. 너와 내가 함께일 수 있는 이게 사랑입니다. 부역에서 음식을 준비할 때도 주부마다 개성이 있습니다. 찬양팀이 노래를 연습할 때도 다 성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테이블 하나를 정돈해도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세상은 의기투합한 사람끼리 모입니다.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 서로 반대되는 사람이 모여 서로 받아주는 곳, 곧 사랑의 터전입니다.

우리 교회는

조금 전에 한국교회 미국교회 말씀도 드렸습시다만 그런 것 따져볼 필요 없이 우리부터 잘 챙기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은사 많지요. 찬양 팀은 노래하고 악기 연주하는 은사, 기계 만지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밥 하는 은사, 뒷정리하는 은사, 하여간 많이 받았습시다. 그러니 이제 필요한 건 뭘입니까? 그 모든 은사 짊어지고 가장 좋은 길 곧 사랑의 길로 걸어가는 일만 남았습시다.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웁니다. 들을 때마다 생각할 것은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사랑일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저런 필요를 느낍니다. 저 테이블을 좀 치워야 되겠구나, 남은 음식을 처리해야 되는데, 오늘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다, 한 번 만나야 되겠다, 남편한테 아니면 아내한테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처리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오늘은 무얼 위해 기도해야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지, 그런 필요도 느낍니다. 그럴 때 마다 꼭 잊지 말 것은 “내가 지금 하려는 게 사랑일까,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일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 혼자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장 잘 활용하는, 정말 사랑의 길로 걸어가는 것일지 그것도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교회는 사람을 앞

세워 편을 갈랐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람을 쫓아가는 무리가 이 뉴욕에도 있고 저 서울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누구한테서 들었는지 그건 신경 쓰지 말고 말씀의 내용만 받아 그걸 어떻게 가장 좋은 사랑의 길로 갖고 갈 수 있을지 생각해야 됩니다.

안디옥교회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더욱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 앞으로 구제도 더 하고 선교도 좀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개인적으로 많이들 하고 계시지만 교회가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가 가진 은사와 책임을 생각하면서 구제를 어떻게 할 건지 선교를 어떻게 할 건지 폭넓은 의견을 모을 수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사랑의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도 많이 한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헛일입니다. 반대로, 보잘것 없어 보이는 은사라도 사랑이면 최곱니다. 은사를 받았으니 물어두면 안 됩니다. 활용해야지요. 사랑이라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사랑입니다. (권수경 목사)